

유방에서 발생한 횡문근육종 1예

¹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²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강순현¹, 차윤진², 정희철¹

서론: 횡문근육종은 연부조직에 생기는 다양한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갖는 미성숙된 악성종양으로 주로 사지, 두경부, 비뇨생식기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유방에서 원발하거나 유방으로의 전이가 일어난 횡문근육종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며 이의 기원도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호르몬관을 주사로 내원한 성인 여성에서 진단된 유방에서 발생한 횡문근육종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20세 여환 내원 2개월 전부터 mMRC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grade 2의 호흡곤란으로 지역 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가슴흉부촬영에서 다량의 오른쪽 흉수 관찰되어 흉강 카테터를 삽입 후 진단을 위하여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특별한 과거력 없었고, 신체검사상에서 오른쪽 빗장위 림프절은 만져졌으나 액와 림프절은 만져지지 않았고 우측 유방의 6시 방향에서 장축 3cm 크기의 무통성의 단단한 종괴가 촉진되었다. 흉부전산화촬영에서 우측 유방종괴를 동반한 우측 늑막, 종격동, 흉벽, 주기관지로 침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복부전산화촬영에서 복막전이 소견이 발견되었다. PET-CT에서는 우측 유방에 강한 FDG 섭취 (SUV_{max}=5.5)와 오른쪽 늑막 및 광범위한 림프절, 복막에서도 증가된 섭취가 관찰되었다. 유방에서 시행한 중심부 바늘 생검에서 포상형(alveolar) 횡문근육종이 확인되었고 골수 생검에서 골수 침범 소견은 없었다. 형광동소보합법에서 포상형 횡문근육종과 연관된 FOXO1 유전자 전위가 확인되었다. 면역조직학적 염색 소견에서 VIMENTIN, DESMIN은 양성하였고 CK, CD20, GATA3는 음성이었다. 환자는 횡문근육종 Stage IV로 진단하여 고식적 화학요법으로 3주 간격으로 Vincristine 1.8, 15일에 1.5mg/m²를 정주하고 1일에 Cyclophosphamide 1,200mg/m², 2일에 Actinomycin 1.5mg/m²를 정주하는 Vincristine, Actinomycin과 Cyclophosphamide 병합요법으로 2차례 항암치료 후 현재 경과 관찰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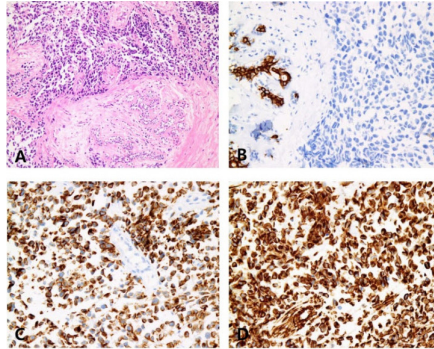


Figure 1. Histopathological findings of breast. (A) Small round tumor cells are infiltrating breast parenchyma. Tumor cells are discohesive and have hyperchromatic nuclei and scant cytoplasm. Note the normal terminal duct of breast (bottom) (H&E, x200). (B) Tumor cells are lack of CK expression while normal breast ductal cells (left) are strongly positive for CK. (C), (D) Tumor cells are diffusely and strongly positive for desmin and vimentin. (C, Desmin x400, D, Vimentin x400).

폐, 간, 피부에 병발한 삼중성 원발암 1예

중앙보훈병원

*민경민

배경: 두 개 이상의 종양이 모두 악성이며 동일 개체 내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조직적으로 상이하여 상호간의 전이 가능성을 배제되면 다발성 원발암이라 하며, 중복암이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발견되었을때를 동시성이라고 한다. 동시성 중복암의 빈도는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는 국내에 폐암과 간세포암, 피부암이 동시에 보고된 사례는 없어 소개하고자 한다. **증례:** 73세 남자 환자로, 2년전부터 발생한 운동시 호흡곤란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CT에서 폐암 및 간전이가 의심된다고 하여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ECOG 수행능력 평가 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근력저하도 없으며 피부에 이상소견도 없었다. PET-CT에서 폐암과 간세포암 의심소견으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와 간 조직검사 시행하여 각각 대세포 신경내분비암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과, 간세포암 (Hepatocellular carcinoma) 으로 진단하였다. 대세포 신경내분비암은 병기 cIIIA (cT3N2) 로 먼저 동시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 후 폐암 수술을 계획하였다. 간세포암에서는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다. 동시항암방사선치료 중에 어깨근력저하 가려움을 동반한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인설로 덮힌 붉은 판이 발견되었다. 오른쪽 새끼손가락 피부에서 조직검사 결과 편평상피암(Squamous cell carcinoma) 진단되어 냉동요법을 시행하였다. 이상 3가지의 악성 종양의 조직검사 결과로 보아 폐암과 간세포암 피부암이 서로 종속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삼중성 원발암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근력저하는 점차 심해지는 양상으로 근전도 및 조직검사, MRI 시행하여 악성종양과 관련된 피부근염으로 진단되었고 ECOG 수행능력 평가 3점으로 증가 및 양팔의 근력저하 심화 및 식이곤란 심해져 류마티스내과로 전과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받았으나 폐렴이 발생하며 장기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수술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결론:** 저자는 폐암과 간암이 동반된 환자에서 피부병변의 조직검사를 통해 피부암을 진단하여 삼중성 원발암의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